

민주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여는

민주공원



2025. 봄호

176



민주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여는

민주공원

2025년 봄호 통권 176호

발행처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발행인 이행봉 | 편집인 이동일
발행일 2025년 4월 15일 | 간별 계간 | 등록일 2005년 4월 12일 | 등록번호 부산중,바00013
표지 제호 신영복 | 편집장 이보람 편집위원 유한별(내부) 김보영 배가영 배정애 이지희(외부)
디자인 중간 051-466-8994 |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 (우 48901)
전화 051-790-7400 전송 051-790-7410 누리집 www.demopark.or.kr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민주공원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SNS로 빠르게 소식을 만나보세요!

- 민주공원 페이스북
facebook.com/Minjugongwon
- 민주공원 인스타그램
@democracypark
- 민주공원 유튜브 채널
youtube.com/민주공원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페이스북
facebook.com/busanminju



펴내면서

금년 봄, 6월이 가기 전 우리 모든 국민은 참다운 민주사회에서 인간답게 사느냐 아니면 다시 또 군부독재정권의 억압과 기만 부패와 폭력의 횡포 속에서 짓눌려 사느냐 하는 기로에 서서 참으로 밝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민주화운동에 앞장서는 의지의 한국인이 되어야 하겠다. 가자! 우리 모두의 단결된 힘으로 민주화의 봄을 맞으러!!

-‘민주화의 봄은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민주시민, 1987년 3월 31일, 제11호 1면-

또 한 번 어렵게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폭력적이고 기만적인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완전한 봄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지지 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가을의 결실을 온전히 거두어 다가올 겨울이 다시 어둡고 차가울지라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이번 봄을 굳세게 맞아 봅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2024년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이후 부산 시민사회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 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도 해봅니다. 그리고 삼일절을 맞아 진행된 ‘우리들의 상상으로 그리는 태극기 이야기’ 전시와 ‘제12회 삼일절 맞이 어린이 태극기 그리기 대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또 6월 말 개관을 앞둔 민주주의기록관과 소장될 사료를 미리 소개합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늘 광장을 지킨 여성들의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큰기놀이라는 조금은 생소한 우리의 놀이를 소개하며 항쟁의 공간에서 민중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전통문화예술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글도 준비했습니다.

지난 겨울 이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올 한 해도 민주부산의 다양한 소식들을 가득 전달하겠습니다. 🇰🇷

▲ 표지 : 에드워드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다.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에 저항하며 거리로 나온 부마민주항쟁의 주역인 부모세대와 응원봉과 센스 있는 깃발을 흔드는 젊은 세대는 45년의 시간을 넘나들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끊임없는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 사진_최우창

목 차

04

마루누리

부산의 윤석열 탄핵운동과 극우내란세력 청산에 대해_김성훈

08

민주공원

우리들의 상상으로 그리는 태극기 이야기_김선아

제12회 삼일절 맞이 어린이 태극기 그리기 대회

민주주의기록관 미리보기_이동문

기억에서 기록으로 '1979년 10월의 기억과 기록'_박지원

20

더: 나은

12·3 계엄과 내란 정국이 남긴 것들_홍순권

'화염병'에서 '응원봉'까지 시대를 잇는 광장의 여성들_조영은

연대의 힘이 커질 때 큰기는 더욱 커진다_김인수

34

회원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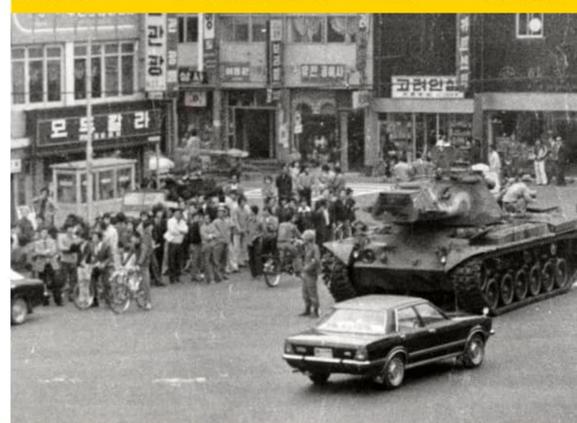
부산민주역사길 현장탐방_유한별

38

민주사랑방

41

민주알림방





부산의 윤석열 탄핵운동과 극우 내란 세력 청산에 대해

김성훈 | 윤퇴진부산행동 집회기획팀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과 내란범들의 비상계엄 선포로 암흑 같은 내란의 밤이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야당의 패악질을 막고 중북반국가세력들을 척결하겠다"라는 얼토당토 않은 극단적인 주장을 하며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투입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곧장 국회도 달려간 용감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이 계엄군의 진입을 맨손으로 막는 것도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다행히 새벽 1시 계엄해제안이 통과됐고, 시간을 질질 끌던 윤석열은 마지못해 새벽 4시 30분경 계엄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란의 밤을 뜬눈으로 보낸 부산의 민주시민사회는 오전부터 긴급하게 모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부산비상행동(약칭: 윤퇴진부산행동)을 출범하고, 매일 저녁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날부터 엄청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급하게 주문한 손피켓 3천장이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우리 부산시민사회가 긴박했던 계엄 사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연대와 단결의 기풍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란 쿠데타 이전부터 “9.28윤석열퇴진부산시민대회, 11.23윤석열퇴진부산시민대행진” 등의 투쟁을 펼쳐왔고, 윤석열퇴진 국민투표운동도 힘차게 진행했습니다. 이때부터 양정연대, 금정연대 등의 이름으로 지역구·군별 연대도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힘 받아 대학생들은 각 대학 내에서 국민투표운동을 벌여냈고, 그 과정에 부경대 학생들의 활동을 학교 측에서 가로막는 사태도 생겼습니다. 윤석열 퇴진을 열망하는 대학생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총장과 면담을 하겠다며 총장실 앞을 찾았지만 총장은 나타나지 않았고, 총장실로 안내한 학교 관계자들도 당황했습니다. 총장이 책임을 회피했다고 생각한 학생들은 총장실(당시 총장이 공식이라 총장직무대행 체제 였음) 앞에서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말 동안 학교 측의 답이 없자, 집으로 돌아가려 본관을 나오려는 때에 뒷문으로 나갈 것을 종용한 학교당국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학교 당국은 신성한 학내에 300여 명의 경찰병력을 불러들이는 있을 수 없는 작태를 벌였습니다. 결국 학생들을 절규하며 연행됐고, 이 문제는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어 국회에서까지 언급될 정도였습니다.

이런 투쟁력이 응축된 결과가 바로 큰 덩어리의 윤퇴진부산행동의 출발이었고, 매일의 대규모 집회 개최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날까지 주말도 없이 11일 동안 매일 집회를 만들어 냈습니다. 3천 명, 5천 명, 1만 명, 2만 명, 점점 대오가 늘어났습니다.

첫 번째 탄핵안이 부결된 후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결국 12월 14일(토) 부산의 전포대로에는 약 10만 명의 부산 시민들이 모였고 여당 국회의원들도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위대한 민중의 승리였습니다.

윤석열 탄핵 집회가 규모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30 응원봉세대가 집회의 주인공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집회에 케이팝 노래가 나오면 좋겠다, 구호가 딱딱하니 노래와 적절히 합치면 좋겠다”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견들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탄핵 집회에 잘 녹여내는 것이 큰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도 청년으로 바꾸고 피켓도 노래도 몽땅 바꿨습니다. 민중가요가 생소한 그들이 민중가요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해당 코너도 만들었습니



다. 이렇게 된 데는 집회 청년기획단의 역할이 컸습니다. 청년기획단은 SNS의 반응을 민감하게 확인하며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려 노력했고, "나만의 피켓 만들기", "윤석열에게 분노의 한마디" 등 사전 부스도 직접 운영했습니다. 행진 트럭 위 케이팝에 맞춘 구호 선동은 고유의 역할이 됐습니다.

그런 노력들로 윤석열 탄핵 집회는 세대와 세대가 어우러지고 민중가요와 케이팝이 함께 울려 퍼지는 대동의 대회가 됐습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에는 매주 토요일 응원봉 세대와 함께 집회를 이어왔습니다.

지역구·군에서도 투쟁의 바람이 일었습니다. 부산의 구·군별 투쟁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 내란범죄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하거나 극우 집회에 참석하여 저항권을 운운하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산 시민들은 의원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쟁했습니다.

극우내란세력들은 지금, 날조 및 거짓선동으로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시켰고,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충분히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라고 말한 히틀러의 심복 괴벨스가 떠오릅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 이런 극우 내란 세력들이 집권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특히 부산의 역할이 큼니다. 단결하고 연대하여 극우 내란 세력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회대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친일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과거가 있습니다. 친일파와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반민특위를 해산시켰고, 애국자들을 암살했습니다. 결국 친일 매국노들이 평평거리며 살아가는 병든 사회가 70여 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현재, 윤석열과 내란 세력 처벌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과거 친일파들이 그랬듯이, 극우세력들은 억지 법절차를 들먹이거나 헌법재판관을 공격하는 짓들을 벌이며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폭력을 동원해 서부지법에서 폭동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런 자들을 그냥 활개치게 둘 수 없습니다.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차기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된다 해도 극우 내란 세력의 준동은 더욱 악랄해질 것이기에 우리 응원봉 민주수호세력은 푹푹 뭉쳐 이들을 제압하고 사회가 대개혁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역사입니다. 민주수호세력이 극우집단의 준동을 물리치고 새로운 역사를 써냈다고 기록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함께 떨쳐 나섭시다! 🇵🇸 (사진: 필자 제공)



태극기 그리기 대회 수상작 전시 및 체험

〈우리들의 상상으로 그리는 태극기 이야기〉

김선아 | 부산민주공원 교육문화팀장

올해 2025년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두웠던 일제 강점기 35년을 지나 우리의 고유한 빛을 다시 밝힌 지 80년이 되었습니다.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저항했던 독립운동의 역사는 1945년 8월 15일을 지나면서, 지금의 민주주의를 얻어내기 위해 저항했던 민주화운동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손에서 민주열사의 손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곁에 있는 태극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두 가지 테마로 구성하여 이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본 전시는 2월 25일(화)부터 3월 30일(일)까지 민주항쟁기념관 3층 잡은펼쳐보임방(기획전시실)에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테마로 <제11회 삼일절 맞이 어린이 태극기 그리기 대회>에서 수상했던 작품 99점을 만나 보았습니다. 어린이들이 '태극기'라는 소재를 해석하고, 상상하여 그린 작품을 통해 태극기의 의미를 새겨보는 전시로, 현장에는 태극기 상상화 그리기 체험 공간을 마련하여 그림으로 직접 표현해 보는 자리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종이를 활용한 그림과 벽면 그리기 방식을 통해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활동의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 테마로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항쟁과 태극기> 특별 사진전을 마련했습니다. 태극기는 독립운동부터 6월 민주항쟁까지 이어지는 뜨거운 저항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외침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손에서부터 독재정권에 저항하던 민주열사의 손에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에 놓인 우리나라 곳곳에서 태극기는 늘 우리 곁을 지켜줬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이전과 이후의 태극기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중하게 얻어낸 광복과 민주화를 기억하고, 태극기의 의미 또한 깊이 되새기는 전시로 구성했습니다.

두 가지 테마로 구성한 전시를 통해 80년 전 광복을 위한 저항과 외침을 기억하고, 태극기의 모습과 의미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대상 - 대한민국국회의장상
대한의 노래 - 김○하, 서울한남초 5

제12회 삼일절 맞이 어린이 태극기 그리기 대회

2월 24일(월)부터 3월 12일(수)까지 어린이들의 애국심과 민주의식 고양 계기를 마련하고 삼일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2025년 <제12회 삼일절 맞이 어린이 태극기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많은 관심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독립운동, 민주주의, 평화와 통일, 시민의 삶, 부산민주공원과 함께하는 태극기 상상화’라는 주제로 전국 초등학생 및 동일 연령 어린이가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작품을 접수하였으며, 총 702명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3월 22일(토) 민주공원 큰방(중극장)에서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접수된 작품을 심사했습니다. 주제의 적합성, 표현의 창의성, 작품의 완성도를 기준으로 심사하였으며, 학년별 작품의 수준을 고려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총 97점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태극기라는 다소 어려운 주제를 스스로 찾아보고 이야기를 발굴하여 창의적인 자신만의 이



대상 - 여성가족부장관상
3.1 세켓 - 이○지, 교리초 6

야기를 깊이 고민하고, 긴 시간을 들여 그리고 채색한 멋진 작품들이 많았습니다”라며 “이러한 기회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더 많이 배우고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심사 총평을 말했습니다.

<제12회 삼일절 맞이 어린이 태극기 그리기 대회>는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부산민주공원이 주관하였으며 여성가족부,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의회, 부산지방보훈청, 부산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부산광역시중구청,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부산문화재단, 부산미술협회,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KBS부산방송총국, KNN, 부산민예총, BNK부산은행이 후원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애국심과 민주주의식이 고양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참가한 702명의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총 97명의 수상자에게도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



민주주의기록관 미리보기

이동문 | 부산민주공원 학술사료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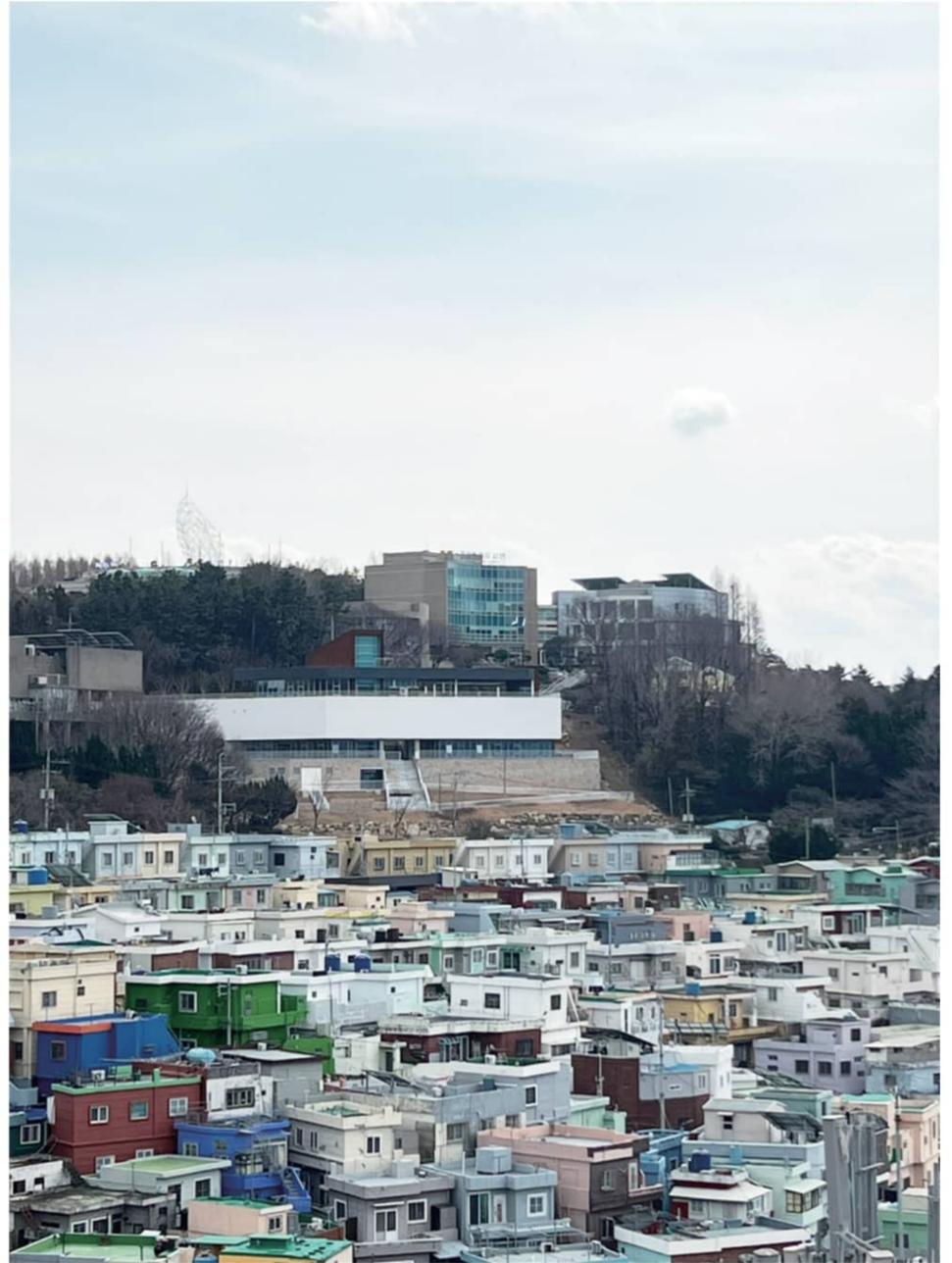
부산민주공원 부속건물의 명칭이 '민주주의기록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부산민주역사사료(전시)관, 민주사료관, 사료관, 민주화운동 역사기념관, 부산민주운동 역사기록관, 민주공원 부속건물(별관), 민주공원 부속 사료관, 부산민주공원 부속건물(사료관), 민주주의역사기록관, 민주항쟁기록관, 부산민주공원 기록관, 부마민주공원 기록관, 민주주의 기록의 집 등으로 불려왔던 부산민주공원 부속건물의 명칭이 '민주주의기록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위탁을 받아 부산민주공원(이하 '민주공원')을 관리·운영하는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는 설문조사를 포함, 명칭 확정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주무부서 행정자치국에서도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민주주의기록관'을 최종 명칭으로 확정하였습니다. 2025년 2월 3일(월)부터 6일(목)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 1,284명이 참여하였고, '민주주의기록관'은 그 중 463표(36.1%)를 득표하였습니다.



민주주의기록관에는 어떤 시설이 있나요?

민주주의기록관의 설립 목적은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역사기록물(사료)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존·관리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하 2층에 ‘보존서고’를, 지하 1층에는 ‘보존 처리실’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회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작품 1천여 점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지상 1층에 ‘보이는 수장고’를 마련하였습니다. 보이는 수장고는 수장을 1차 목표로 하지만, 관람객이 미술관이나 전시장을 둘러보듯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수장고입니다. 가로 폭 9m의 대형 작품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기록관 지상2층

에서는 ‘사료전시실’과 ‘체험교육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료전시실에는 부산 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실물 사료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실물 사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나 짧은 해설도 함께 전시하고, 소박하나마 몰입형 디지털 미디어도 설치해서 관람객이 더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체험교육장에서는 주로 어린이·청소년 관람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민주공원의 본관에 해당하는 ‘민주항쟁기념관’과 연동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로서 민주주의기록관의 장점은 구덕운동장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서구 일원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 맛집이라는 것입니다. 지상 1층의 야외 테라스를 포함한 조경 구역은 탁 트인 전망과 함께 나들이하기 좋은, 민주공원의 새로운 명소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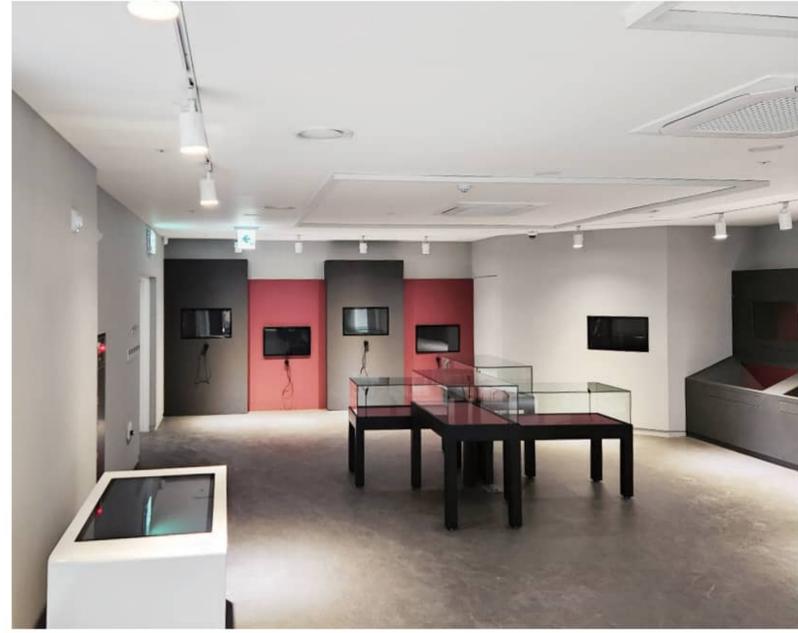
민주주의기록관은 언제 개관하나요?

민주공원은 6월 하순에 있을 민주주의기록관 개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2,191㎡(660여 평),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라 점검하고 보수해야 할 곳이 아직 많습니다. 전시실을 꾸미는 일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2월에야 정식 명칭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로고를 만들고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안내문을 만드는 일도 한창입니다. 특히 민주항쟁기념관에 보존 중인 사료를 민주주의기록관으로 모두 이관하는 일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개관과 연동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전시, 학술대회 준비에도 많은 담

과 정성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기록관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민주주의기록관은 공공 기록물이 아니라 민간의 기록물을 수집·보존·관리·활용하는 곳입니다. 국가기록원이나 대통령기록관 등이 수집하는 공공기록물에 비해 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수집 경로가 다양하고 비체계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공고히하기 위해서는 공공기록물이 은폐하거나 억압해 왔던 기억을 모으고, 문서 기록의 편향성을 극복하는 일, 제도화된 기억이 갖는 위험성을 극복하는 일 등, 기록물 관리와 연구의 전문 역량을 갖추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민주공원은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소장한 기록물 현황을 조사하고 목록을 만드는 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국의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소장·관리하고 있는 민주주의 기록물을 민주주의기록관에서 시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민주공원 민주주의기록관이 시민의 민주주의 기억 저장소가 되어 시민 모두와 그 성과를 공유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민주주의기록관 전망(부산시 서구 일원)



1979년 10월의 기억과 기록

박지원 | 부산민주공원 학술사료팀 기록물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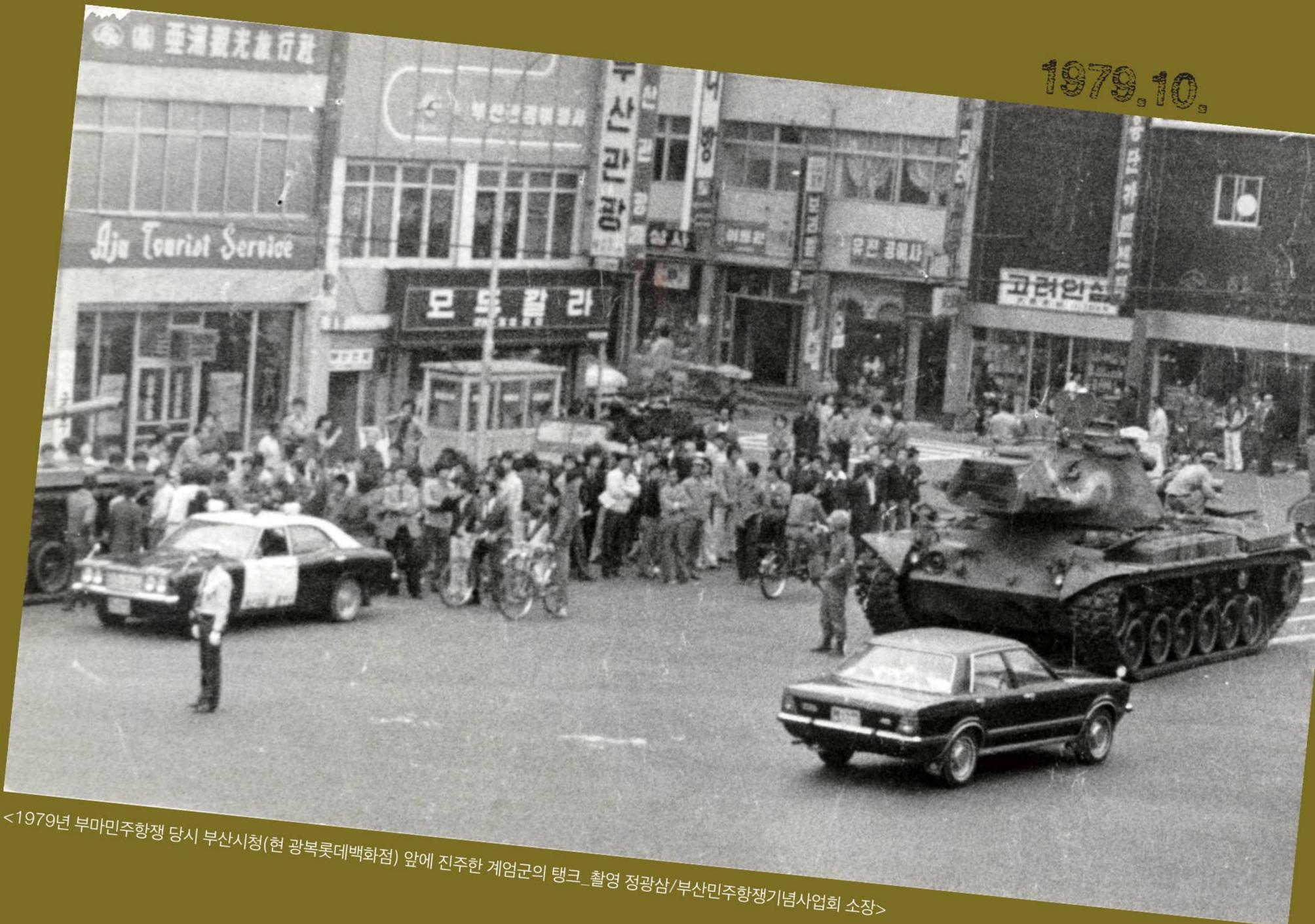
“ ‘기억에서 기록으로’에서는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소장한 부산지역 민주화 운동 관련 사료를 소개합니다. 소개된 사료는 6월 말 개관 예정인 민주주의기록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독재타도와 유신철폐를 외치는 시위가 마산·창원 등지로 확산, 시민항쟁으로 발전하였다. 17일 야간시위에는 대학생, 노동자, 화이트칼라, 상인, 종업원, 고교생 등도 참여



<1979.10.18. 계엄포고문을 읽고 있는 시민들_촬영 김탁돈/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소장>

했다. KBS부산방송국과 도청·세무서·파출소 등이 파괴되는 등 시위가 격렬해지자 1979년 10월 18일 정부는 새벽 0시를 기해 부산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령이 선포된 부산지역에는 공수부대가 동원되어 시위하는 학생과 시민을 진압하기 시작했다.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시청(현 광복롯데백화점) 앞에 진주한 계엄군의 탱크_촬영 정광삼/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소장>

계엄포고문을 보고 있는 시민의 모습과 계엄군의 탱크 사진은 부마민주항쟁 당시의 억압된 상황과 공포감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다.

“학원 및 언론의 자유와 유신체제 종식”의 내용이 담긴 부산대학교 ‘민주투쟁선언문’은 훗날 부마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어 동아대학교 학생, 시민들이 동참했고, 18일 마산으로 항쟁을 확대했다.

부마민주항쟁 당시를 기록한 고무공장 노동자 추송례씨의 일기장을 통해 우리는 당시 노동자의 현실과 항쟁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개인의 사소한 기억과 기록이라도 훗날 중요한 기록이 될 수 있다. 

12·3 계엄과 내란 정국이 남긴 것들

홍순권 |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2025년 4월 4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그의 파면을 선고함으로써 그는 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탄핵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29분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통한 이른바 친위쿠데타 시도는 이 소식을 듣자 분연히 국회로 모여든 시민들의 저항에 막혀 4일 1시 2분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으로써 사실상 한순간의 해프닝인 양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로 인해 조성된 이른바 ‘내란’ 정국은 계엄 선포부터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과 선고가 있기까지 무려 122일간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정국 불안과 경제적 손실은 그야말로 상상 이상의 것일 것이다. 비록 민주주의 승리, 국민의 승리로 결말지어졌지만, 애당초 탄핵 국면이 조기에 수습될 것으로 기대했던 많은 국민은 오랜 시간 동안 ‘내란’ 옹호 세력의 비이성적 반헌법적 난동과 저항에 마음을 졸이며 큰 충격을 받았고, 이는 우리 사회에 깊은 정신적 상흔, 즉 국민적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다.

본래 계엄령이란 평시에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력이 아니다. 단지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일종의 예외권력, 즉 비상권력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역대 통치자들은 이를 ‘전가의 보도’로 인식하고 강압적 통치체제, 즉 독재체제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계엄령이 처음 발동된 것은 1948년 10월 ‘여순사건’ 때이다. 이후 역대 독재정권 하에서 여러 차례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 선포는 1980년 5월의 계엄 확대 조치 이후 거의 45년 만의 일이다. 6.10 민주항쟁이 일어난 1987년으로부터 37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갑자기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니 그동안 모범적인 선진 민주국가의 시민으로 자처하던 일반 국민으로서는 황당무계 그 자체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는 다시 한번 24년 12월 3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계엄령 통치와 같은 절대권력이 예외적으로 행사되지 않고 일상화된 상태의 정치체제를 우리는 파시즘이라 일컫는다. 우리는 이번 내란 정국을 지나오는 과정에서 마치 ‘바이든’을 ‘날리면’이라 하듯이 윤석열의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옹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의 파시즘적 사고와 행태를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미 이러한 파시즘과 유사한 정치체제의 경험이 있었기에 그 충격은 더욱 크고 뼈아프다.

계엄령은 1948년 10월 여순사건에서 처음으로 선포되





고 적용되었지만, 당시 계엄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계엄령은 같은 해 11월 제주 4·3사건에서도 실시되었다. 이때에도 계엄 관련 법령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때 정부와 군 당국은 일제 계엄령 구조나 개념을 가지고 계엄을 선포하고 시행하였다. 제주 4·3사건은 2000년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되어 왔고, 여순사건은 사건 발생 73년이 지난 2021년 7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현재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계엄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49년 11월 24일이다. 그런데 계엄법 제정 과정에서 계엄통치의 일상화와 공포정치로 나아갈 위험성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당시 유성갑 국회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독회 중 “계엄령만 펴면 어떤 사람이고 총살도 할 수 있고, 즉결처분도 할 수 있다. 그러한 관념이 있으면 큰일”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계엄령의 남발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낸 것이지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계엄통치의 폭력성에 대한 경험과 그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대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계엄령의 악몽은 부산과도 관계가 깊다. 한국전쟁으로 부산이 임시수도였던 1952년 5월 이승만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반대파 국회의원들을 강제 연행하며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 직선제를 시도하였다. 이른바 '부산정치파동'이다. 이는 계엄법 제정 이후 최초의 계엄령 남용 사례로 기록되었다. 이후 군사 정권에서도 정권 유지 수단으로 계엄령을 악용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유신체제를 위한 개헌을 시도하였다, 1979년 10월에는 부산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유신독재 타도를 외치며 부마민주항쟁을 일으키자, 박정희 대통령은 다시 부산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하였다. 이때 시위 진압 과정에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를 증언하는 많은 사람이 아직도 살아 있다. 보수 논객인 조갑제가 기록한 그의 저서 『유고!』(한길사, 1987)에는 당시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설명하면서 당시 법무장관 김치열의 반론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부산 지방에서 데모가 난 것은 김영삼 의원 제명의 후유증이며, 민주주의가 짓밟혔다고 생각한 시민 감정의 폭발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산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정치도외에 어긋난 것입니다. 정부가 마지막 비상수단을 행사하지 않고서는 통치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관광·무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생각해야 합니다.” 운운.

우리 국민이 기억하는 계엄령에 관한 가장 끔찍한 트라우마는 1980년 전두환의 5.17 계엄령 확대 및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일 것이다.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은 제주도를 제외했던 비상계엄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심지어 국회마저 봉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권력 찬탈에 대한 광주의 학생과 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일어나자, 전두환 등은 계엄군을 동원하여 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집단학살의 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피의 항쟁으로 시작된 저항은 제5공화국 하에서도 지속적인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켜 전두환 정권은 1987년 6·29 선언으로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이후 민주화 시대가 열리면서 제6공화국은 과거 대통령의 계엄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 유린과 정치적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서 1987년 헌법 개정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단지 헌법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국회를 침탈한 12·3 계엄의 본질은 헌정 질서의 파괴이자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부정 그 자체이다.

이처럼 한국의 계엄령은 민주화운동과는 서로 대척점에 위치하면서 국민적 트라우마로서 한국현대사 속에 깊숙이 각인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국가적 아젠다가 바로 다름아닌 과거사 정리, 즉 과거사 청산이다. 1995년 ‘5·18민주화운동에관한특별법’ 제정 이래 한국의 과거사 청산은 2005년 5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기본법’의 제정 따라 진실화해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본격화 되었다. 동 위원회는 2006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2010년 제1기 위원회 활동을 마감하였고, 2020년 12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재구성되어 현재 활동 중이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는 2024년 노벨수상작가 한강의 말에서 따온 말이다. 이는 12·3 계엄령 선포 소식을 듣고 달려 나온 시민들의 저항으로 계엄령이 무산되자 여러 매체를 통해 시민 사이에 자주 회자된 경구가 되었다. 이 말과 함께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한강 작가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물론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다는 상상은 우리가 역사적 경험을 잊지 않고 올바르게 기억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내란’ 사태의 한 막은 끝이 난 셈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되었던 12.3 내란과 내란 수괴인 윤석열에 대한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12.3 내란은 누구와 공모하여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재판과정을 통해 그 진상이 낱알이 규명되어야 하고, 관련자들에게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엄정한 법적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이번 대통령탄핵의 사유가 된 계엄령 선포와 같은 헌법 질서의 파괴 시도가 이른바 민주화 시대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는 ‘87년 체제’의 한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제대로 된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1987년 6.10민주항쟁으로 인해 종전 군사독재정권이 무너지고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된 것은 역사적으로 큰 진보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독재정권을 지탱하고 있던 사회구조적 기반이 완전히 청산된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과거 독재정권의 이념적 기반이자 통치 수단이기도 했던 반공이데올로기의 텃줄인 분단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독재정권하에서 수혜를 누렸던 세력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기득권세력으로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과거 독재정권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는 이들은 과거로의 회귀를 꿈꾸며 그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온갖 술책을 획책하고 있다. 정치적 극우파로 지칭되는 이들은 민주화 이후 수면 아래서 은밀히 움직여오다가 이번 대통령 탄핵 국면에 이르러 불쑥 수면 위로 올라와 광장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며 국면 전환을 위해서 온갖 광기를 부리며 패악질을 저질러온 모습은 그동안 우리 지켜본 그대로이다.

결과적으로 저들의 헛된 꿈은 일단 좌절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역사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한반도의 분단체제가 유지되고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한 저들은 이러저러한 반평화적 대결적 환경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려 할 것이다. 반민주적 극우세력의 준동을 뿌리뽑기 위해서, 그로 인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퇴행을 막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긴장을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우리 사회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 구조와 우리 사회 내부에 스며든 파시즘의 적폐가 근본적으로 혁파되지 않는 한 이번 내란과 같은 역사적 사건은 언제 다시 유사한 형태 반복될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거사 정리를 제대로 마무리하여 파시즘적 사고의 온상이 되어 있는 뉴라이트 부류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철저히 극복하고 청산하는 일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올바른

역사교육이야말로 미래의 민주 시민을 길러내고 역사의 퇴행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새삼스럽게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



‘화염병’에서 ‘응원봉’까지 시대를 잇는 광장의 여성들

조영은 | (사)부산여성회 부대표



2024년 겨울부터 이어진 윤석열 탄핵광장의 주인공은 단연 응원봉으로 무장한 20·30세대 여성들이었다. K-POP, 아이돌 응원봉, 그리고 젊은 여성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정치집회 현장과는 어울리지 않게 느껴졌던 이들의 등장과 활약을 모두가 놀라워했다. 그리고 이 현상을 분석하는 다양한 글과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공감 가는 내용과 예리한 분석도 있었지만 ‘갑자기 광장에 등장한 젊은 응원봉 여성들’이라는 서술은 그 전제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은 이번에 갑자기 광장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광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광장’ 혹은 투쟁의 현장에는 언제나 여성들이 있었다. 그 수도 적지 않았고 그 역할도 작지 않았다. 멀게는 박정희 유신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부마항쟁의 도화선이 된 YH여공들의 투쟁이 있었으며,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때는 교복 입은 10대 여성들이 ‘촛불소녀’로 불리며 투쟁의 마스코트가 되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늘 여성들은 집회에서는 투쟁의 꽃이나 마스코트로 주목을 받았다가 금방 잊혀진곤 했다. 집회가 끝나고 그 투쟁의 성과로 새로운 권력이 재창출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지워지고 배제되는 구조 때문에 매번 그 존재가 새롭게 발견되었던 것뿐이지 차별과 억압이 있는 현장,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역사의 현장에는 언제나 여성들이 있었다.

나는 2002년 미군 장갑차에 목숨을 잃은 여중생 미선이 효순이 촛불집회 때부터 시작해서 이번 윤석열 탄핵광장까지 집회에 꾸준히 참석하고 있는 24년 차 촛불시민이다. 그리고 나는 부산에서 나고 자라서 20대 때부터 부산여성회라는 여성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운동가이자 7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페미니스트 엄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참여했고, 잘 알고 있는 부산여성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지난 30여 년간 언

제나 광장을 지켜온 부산 여성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분명히 광장에는 내가 미처 알지 못해서 담지 못한 다른 여성운동단체와 수많은 여성의 이야기들이 존재할 것이다. 이번 윤석열 탄핵광장에서 끝까지 광장을 지켰고 누구보다 앞장섰던 여성들의 이야기가 역사에 기록되길 희망하며 나도 그 기록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나처럼 부산에서 나고 자란 박지선이라는 여성 감독이 만든 ‘마녀들의 카니발’이라는 영화가 있다. 이 영화는 1990년대 초반부터 미투운동이 한창이던 시기까지 부산의 여성운동 역사를 담은 다큐멘터리이다. 그 영화에 등장하는 여성

들이 바로 부산여성운동의 산 중인이자 지금도 광장을 지키는 여성들이다. 이들은 87년 6월 항쟁에 참여했고 당시 시위 때 짱돌을 깨고 함께 백골단과 맞섰던 여학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살려 “화염병부터 응원봉까지 행동하는 여성연대”라는 깃발을 만들어서 이번 윤석열 탄핵광장에 참여하였다.

내가 활동하고 있는 부산여성회는 ‘부산여성노동자회’(1988년 창립)와 ‘구.부산여성회’(1990년 창립)가 통합하여 1995년에 창립해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여성운동단체다.

통합 전 두 단체는 1993년 주디스태화가 ‘태화쇼핑’이라고 불리던 시절, 이곳에 “매 맞는 아내, 이 가여운 어머니를 어린 자녀에게 돌려보냅시다”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가정폭력이라는 말도 없던 당시에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운동은 1997년 ‘가정폭력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통합 부산여성회는 여성노동, 여성인권, 풀뿌리, 통일,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범한 여성들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활동을 30년간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화염병부터 응원봉까지’ 깃발 아래에는 부산학부모연대도 함께하고 있다. 부산학부모연대는



치맛바람, 진상 학부모라는 여성 학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맞서 경쟁교육을 반대하며, 2014년 세월호의 아픔 속에서 탄생한 진보적 학부모단체다. 작년 창립 10주년을 맞아 학령기 자녀를 둔 생물학적 학부모의 역할뿐만 아니라 경쟁과 차별이 없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민주시민으로 정치·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회적 학부모 선언을 했다.

우리는 1990년부터 해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이 되면 3.8 세계 여성의 날 부산여성(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다. 장소는 매년 상황과 기획에 따라 달라졌지만 주로 서면에서 집회를 열어 '빵과 장미'로 표현되는 여성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의 평등을 요구했다. 3.8부산여성대회는 단순히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아니라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고 평등 세상을 바라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투쟁하는 살아있는 오늘의 광장이다.

또한 우리는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광장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물대포에 맞섰던 전설의 유모차부대 엄마들이었다. 온라인(다음 부산맘카페) 활동을 병행하며 어린아이와 함께 돛자리를 펴고 간식을 챙겨와서 집회에 참석하고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행진하는 새로운 집회 문화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에는 부산역에서 부산지역 최초의 촛불 추모제를 열었다. 날마다 촛불집회를 이어가며 당시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던 부산역 광장 공사장 벽면을 부산 시민들의 슬픔과 분노에 찬 포스트잇 메시지로 가득 채우기도 했다.

2017년 5월 17일에는 서면 하트 동상 앞에서 '우리의 두려움은 용기가 되어 돌아왔다'-강남역 여성혐오 범죄 1주기 추모 및 부산여성행동의 날 집회를 부산지역 대학생 페미니즘 단체 등과 함께 진행했다. 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집회가 시작되기를 조용히 기다리던 여성들의 모습,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발언을 이어가던 어느 성소수자, 발언자들의 말을 한마디로 놓치지 않으려고 온 신경을 집중하던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일 년 후 2018년 5월 17일에는 5.17여성혐오범죄 2주기 추모 및 부산지역 미투집회 ‘성차별 성폭력 끝장집회’를 진행하였다. 그날은 그야말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현장을 지켰고 우리는 그날 준비된 집회와 행진을 끝까지 수많은 참가자와 지켜냈다. 이 부산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는 그해 연말까지 매달 1회씩 7차까지 이어졌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기습적으로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를 하였다. 그 소식을 들은 부산지역의 여성들은 이에 반대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며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해결을 위한 부산여성행동』(이하 부산여성행동)을 결성하였다. 2016년 첫 수요일인 1월 6일에 부산여성행동은 첫 정기 수요시위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10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부산수요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부산의 수요시위는 현재(2025년 3월 말 기준) 111차가 진행되었다. 수요시위의 광장은 초량에 있는 일본영사관 앞 일장기를 바라보고 있는 부산평화의 소녀상 옆이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 탄핵광장에서는 집회 시작 1~2시간 전에 미리 나와서 ‘화염병부터 응원봉까지 행동하는 여성연대’ 깃발을 펴고 여성운동의 상징색인 *보라빛 스카프를 두르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 부산광장의 여성들은 윤석열 탄핵 후에도 여성들이 바라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계속 투쟁하며 광장을 지킬 것이다. 차별받고 억압받는 모든 약자와 소수자들과 함께 할 것이며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든 사람과 연대할 것이다.

부산여성회는 이번 윤석열 탄핵광장에 나온 여성의 존재와 목소리가 다시는 지워지지 않도록, ‘갑자기 등장했다’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이번 광장에 함께했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기록하는 인터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광장에 나오지는 않았더라도 인터뷰 대상이 될 수 있다. 성평등 한 세상을 바라는 부산에 사는 20·30세대 여성들을 만나 그들의 삶과 일상, 그들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듣고자 한다. 🗨️ (사진:필자 제공)

*보라색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운동을 상징하는 색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정의와 존엄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하다. 보라색은 20세기 초 영국의 여성참정권 운동가(서프러제트)들이 참정권 운동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색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강점기 가장 큰 규모의 여성단체였던 근우회 임시전국대회 참석자들을 ‘연보라마크를 부친 여성 행방의 투사’라고 당시(1928년 7월) 동아일보에 보도된 바가 있다. 또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회원들이 보라빛 수건을 쓴 채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수년간 이어가기도 했다. 3.8 세계 여성의 날 행사의 포스터와 상징물은 주로 보라색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부산여성회의 깃발, 로고도 보라색이다.

연대의 힘이 커질 때 큰기는 더욱 커진다

김인수 | 풍물꾼/풍물굿패소리결 대표

2024-2025 부산시민대회에 큰기를 들고 함께 함. 시민들에게 '큰기아저씨'로 불려짐.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1월 4일 부산시민대회에서 연설했던 내용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
제가 드는 큰 깃발이 아무리 커도 여기에 모인 연대의 마음이 없으면 한낱 종이쪽지보다도 못할 것입니다. 작은 포스트잇에 적어서 손바닥에 붙여 흔들더라도 연대의 마음이 모이면 태산과도 같은 큰 깃발이 됩니다.

(중략)

우리 약속 하나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하는 싸움은 이길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들은 승리하고, 내란수괴와 공범들은 구속되고 처벌될 것입니다. 그 후에 오는 세계는 우리가 세운 각각의 깃발들이 오롯이 서서 제 목소리를 다할 때,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대의 마음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먹거리를 지켜주는 농민들의 싸움에 연대하고, 1년이 다 되어가는 고공농성과, 수십억의 손배소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연대하며, 기본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싸우는 장애인과 연대하고,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늘 억압받는 여성과 연대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소수자들, 그리고 온갖 억압에 맞서 싸우는 세상의 모든 약자들, 더 나아가 자본의 탐욕에 한마디 말도 못 하고 쓰러져가는 새와 짐승들, 나무와 풀들과도 함께 연대합시다!

....



탄핵 광장이 열리기 전, 제가 활동하는 풍물굿패 소리결의 자체 역량강화사업으로 큰기놀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용기(풍물굿 등을 연행할 때 쓰이는 용이 그려진 커다란기)놀이를 바탕으로 한 큰기놀이는 그 크기의 웅장함과 시각적인 화려함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과 기운을 북돋우는 역할을 합니다. 각 마을마다의 특징과 독특함을 내세웠던 이 큰기에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우는 그림과 글을 그



리고 써서 광장에서 흔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12.3 계엄선포가 있기 전 처음 제작하였던 큰기는 ‘사람이 주인되는 나라’입니다. 2024년 11월 23일 있었던 윤석열 퇴진 사회대개혁 13차 부산 시국대회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큰기 제작은 구지연 선생님, 글씨는 곽영화 작가님께서 써주셨는데 곽영화 선생님은 최근 부산민예총 13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이 깃발은 지나가던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분의 실수로 깃발이 휘감겨 깃발이 조금 훼손된 상태로 첫 선을 보이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작하였던 큰기는 ‘윤석열 탄핵……’입니다. 이 글씨는 서예가이신 시은 윤영석 선생님께서 일필휘지로 써주셨습니다. 12월 7일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는 상황에 보다 직접적이고 확실한 구호를 큰기에 쓰게 되었습니다. 이 깃발을 들고 나간

후 인스타그램 등에서 화제가 되었으며 그때 당시는 이해를 하지 못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 이렇게 명일방주에서 머틀이 깃발 흔들면 코스트가 수급되는구나 싶었음’ 이해되시나요?^^

세 번째로 제작한 큰기는 ‘마! 좀!! 끄지라!!!’ 깃발입니다. 이 깃발은 12월 12일 윤석열의 담화에 분노하며 하루 만에 제작한 깃발입니다. 글씨는 이현 구성호 선생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 모두에게 부산시민들의 응축된 분노와 함성을 담아 내지르는 구호로 표현한 큰기입니다. 이 큰기는 부산시민들의 남다른 기개를 보여주는 깃발이라며 X와 인스타그램 등 젊은 층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어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12월 14일 탄핵안 가결 집회에서 등장해 수많은 리트윗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부산시위의 명물 “마 좀 끄지라” 깃발 직관!’ ‘구호 외칠 때 40·50대 아재들 목소리 짱 큼’ ‘마 좀 끄지라 깃발 너무 멋있었다...’



아나

자유
민주

시포츠토트

민주
자유

영국
자주
노

네 번째로 제작한 큰기는 ‘민주주의’ 깃발입니다. 2024년 12월 28일에 처음 선을 보였습니다. 그날 바로 부산의 남태령! 못골고개를 넘어 남구까지 행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문현교차로에서 휘날리던 민주주의 깃발은 행진대오에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민주주의’ 깃발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독재 시대로 돌아갈 뻔했던 순간을 돌아보며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깃발로 제작되었습니다. 탄핵 광장에 나온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를 표현하고자 민주주의 글자에 한국의 전통문양인 단청무늬를 넣어 민주주의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표현하였습니다. 이 깃발 글씨는 부산민예총 사무처장님이신 황종모 선생님께서 디자인과 그림작업을 해주셨습니다. 단청무늬가 들어가다보니 미리 디자인을 해서 그것을 큰 깃발에 그대로 옮겨 그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옛날 대형 걸개그림을 그리던 방식을 사용해서 깃발에 모눈을 그리고 위치에 맞게 밑그림을 그린 후 색깔을 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풍물굿패 소리결의 회원들과 함께 제작에 참여해서 빠른 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작한 깃발은 ‘내란공범 검찰해체’입니다. 그 길고 추운 겨울을 견디며 일상을 회복해 가면서 파면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에게 너무나도 어이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법원에서 윤석열 구속취소를 하고 검찰에서는 맛장구치듯이 항고 포기를 하고 풀어준 것입니다. 역시나 나라를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검찰과 법원임을 확인하며 잠시 봄날을 꿈꾸며 방심하였던 마음을 반성하고 파면 이후에도 검찰조직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마! 쫌!! 꼬지라!!!’ 깃발을 적어주셨던 이현 구성호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수고해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까지 제작된 모든 깃발의 재단과 재봉은 구지연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늘 옆에서 애써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연대의 힘이 강할 때 큰기는 더욱 커진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언된 후 탄핵 집회가 열리는 곳이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광장으로 나





사진 최우창

갔습니다.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 때는 일정을 변경해서라도 광장으로 나갔으니 거의 모든 집회에 함께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언 후에 떠오른 생각은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파괴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큰기아저씨 발언의 가장 큰 요지는 ‘연대’입니다. 짧은 시간 비약적인 경제적 성과를 이루면서 우리의 일상은 ‘연대’라는 가치가 점점 더 사라지고 멀어지고 있었고 각자의 삶을 각자가 지켜 내기에 바빴던 결과가 지금의 내란 사태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공동체’의 DNA가 오롯이 살아 있음을 느낄 수 있었던 탄핵의 광장이었습니다. ‘연대=공동체’라는 등식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혼자 서있을 땐 두렵지만 같은 뜻을 가진 이들과 체온을 느끼면서 함께 찬바람을 이겨낼 때의 힘과 기운은 직접 마주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집회 참여자를 위해 선결제를 하고, 집회 후원을 위해 스마트폰에서 은행 앱을 켜서 후원금을 송금하고, 자원봉사자로 신청해서 어떤 역할이라도 하고자 하고, 집회기획팀에 자원해서 보다 많은 이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함께 집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광장에서 윤석열 탄핵을 위해 그 추운 겨울을 광장에 함께 이겨내었던 이들은 보이지 않는 단단한 끈이 생겼습니다. 바로 ‘연대’의 끈입니다. 이 연대의 끈이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갈 거라 확신합니다.

‘나 혼자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삶을 살 때는 웬지 모를 외로움과 무기력을 느꼈는데 광장에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호흡을 하니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정성과 노력이 이어지고 이어져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느꼈다’라는 어느 시민의 이야기에 모든 것이 담겨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직접 농사를 지어 먹거리를 해결하며, 직접 옷을 지어 입고, 혼자 힘으로 집을 지어 올려 찬 바람을 막아내고, 살아가면서 생기는 필수적인 쓰레기들을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도시의 공간은 누군가의 정성과 노력으로 우리의 생활공간과 삶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공동체의 정신이고 연대의 마음입니다.

자본의 효용 논리가 이 공동체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이어지지 못하게 하고 끊어져 각자 살아가게 만든 결과의 정점이 윤석열입니다. 서로를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들이 비상계엄 선언으로 연대의 광장에서 만났고 서로가 이어져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무심히 걷던 그 길의 끝이 각자도생의 지옥문임을 마주한 우리는, 모든 기운을 다하여 서로를 북돋우며 어깨를 걸고 손을 마주 잡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을 함께 내딛고 있음을 느낍니다.

윤석열은 파면되고 내란 공범들은 처벌되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새로운 세계에서도 각자가 세운 깃발 내리지 말고 끝없이 연대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세계일 것입니다. 광장에서 느꼈던 서로의 눈빛과 체온을 일상에서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일구어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덧붙여 여전히 전통문화와 예술을 이어가며 공동체 삶의 방식을 찾아 쉽 없이 노력하고 있는 풍물인과 전통예술단체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함께해주신 분들의 정성을 알리고자 참여하신 분들 이름을 알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필자 제공)

2024-2025 윤석열 퇴진 탄핵풍물 공연 및 시민풍물단 참가 현황

개인

김인수 구지연 이은규 황예솔 추연주 김지연 이동건 지용환 이보영 김성화 김민호 김수 김수현 김한 장재희 양정아 조대일 임채련 박정희 우정은 류재철 배혜영 김영희 김경란 박란숙 이재화 김태근 이우창 한상훈 김선민 강민경 고희창 강성현 이경숙 김진만 김성만 박종훈 이미옥 이유진 전소영 김지영 권철 김현미 공도연 김소영 김하진 하선학 최벽혜 김태현 엄선혜 ○수정 최수만 박동오 김보겸 김현일 신명수 이쌍철 류재동 하연화 이상우 정민수 장주연 김정윤 김필호 하지원 박성호 청소년비상행동2인 박도현(대학생비상행동)외1인 김보람(청년예술단) 전애진(청년예술단)

단체

풍물굿패소리결 창작연희더눔 풍류인 우소락청 공연집단더 옛소리 풍물터만판 부산건설기계 지부풍물패세상소리 남산놀이마당 뽀글이프로젝트 풍물굿패다물 노무현재단풍물패두드림 풍물패바람결 발달장애인풍물패굴렁쇠 북춤별동대 부산대학교단대풍물패연합 부산노동자풍물패연합 부산민예총풍물굿위원회 청년예술단 윤퇴진청소년비상행동 윤퇴진대학생비상행동

깃발 제작

깃발 제작 : 구지연
그림 및 글씨 : 광영화, 윤영석, 황종모, 구성호
도움 : 추연주, 이보영

신입회원이 직접 걸어본 민주공원의 교육 프로그램 부산민주역사길 현장탐방

유한별 | 부산민주공원 시민홍보팀 시민·회원사업

길었던 겨울이 지나 포근한 날씨가 찾아온 2월 말의 어느 날, 2월초 회원가입을 한 딱딱딱한 신입회원님들과 함께 <부산민주역사길 현장탐방>을 진행했습니다. 민주공원의 민주항쟁기념관 1층에서 만나 도보로 내려가 남포동 일대를 돌아보는 '자주민주길 코스'를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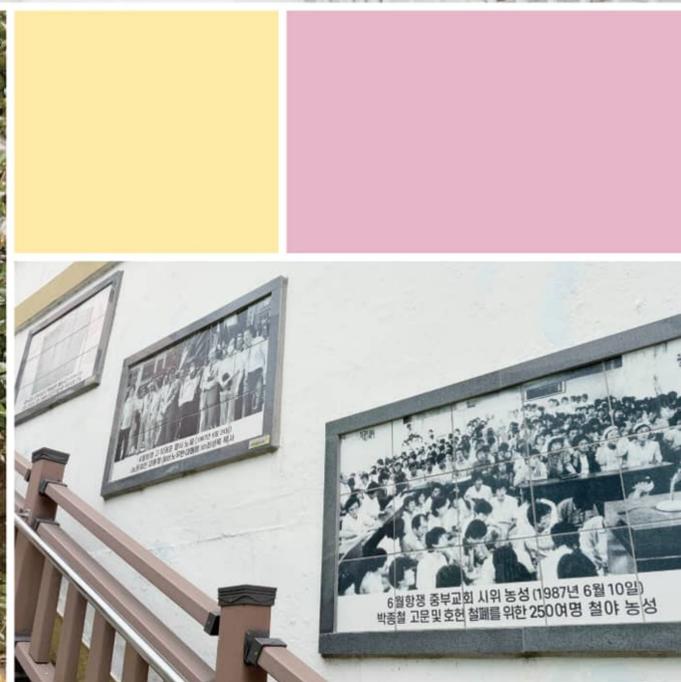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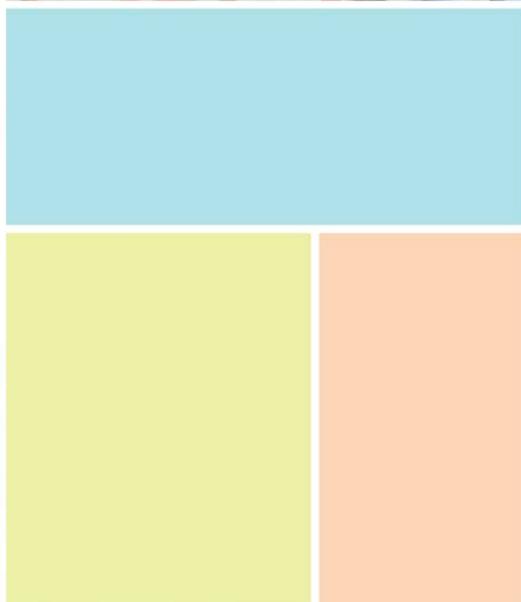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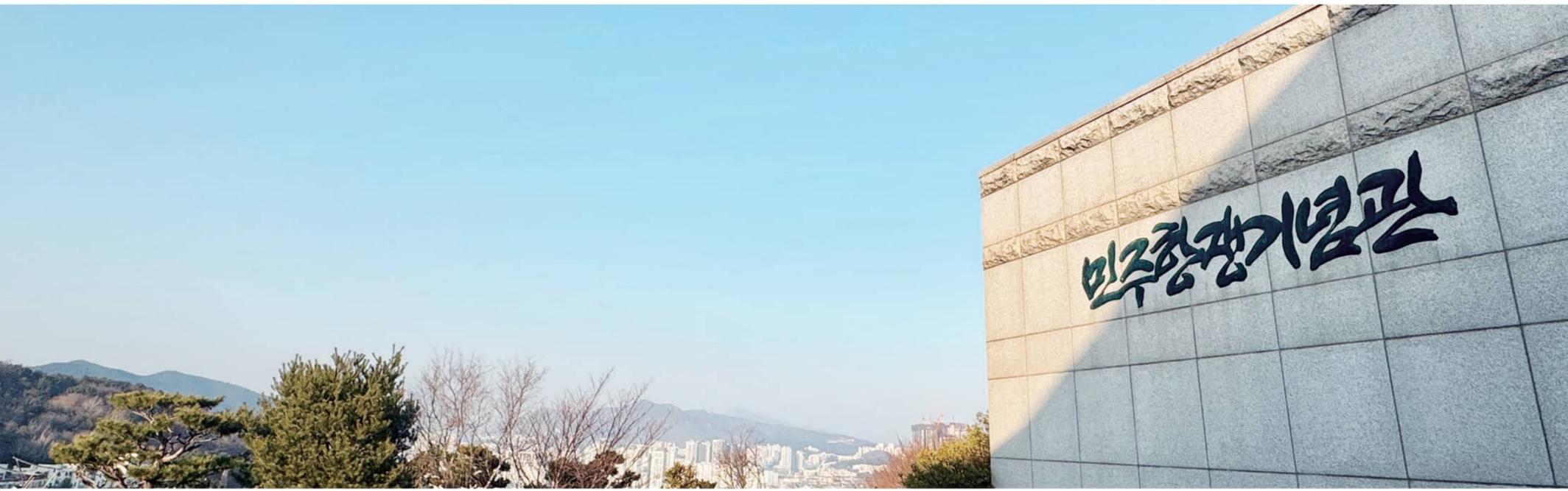
민주항쟁기념관 1층 로비에 있는 민주항쟁도 앞에서 민주공원의 '민주길해설사' 박경연 선생님을 만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날 함께 해 주신 민주길해설사 선생님께서는 무려 7년이나 민주공원의 해설사로 활동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많은 시민과 청소년들과 마주하며 민주주의를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이끌어주고 계신 만큼, 해설사님의 친절하고 따뜻한 안내 속에서 민주공원을 향한 애정과 신입회원님들을 환영하는 마음을 물씬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넋기림마당(추념의장)에 자리 잡고 있는 추모의 벽 '늘빛드레'로 내려갔습니다. 군부독재에 저항하여 민주주의와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부산 출신의 6월 민주열사 세 분의 얼굴이 걸린 현관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태춘, 박종철, 황보영국 열사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회원도 있었는데요. 미처 알지 못한 채 지나쳐온 열사분들의 이름을 눈과 마음에 새기며 4·19광장으로 이동하여 4·19

민주혁명희생자위령탑을 둘러보았습니다. 위령탑이 본래 용두산 공원에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는 민주공원의 곁으로 옮겨오게 되어 뜻 깊다는 생각하며, 4·19광장 옆길을 따라 부산 가톨릭센터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부산가톨릭센터의 스테인드글라스 창문 아래에서 아름답게 아롱거리는 빛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6월항쟁 시기, 이곳에서 시위대가 농성을 벌일 수 있도록 공간을 열고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며 부산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구심점이 되었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농성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수많은 시민과 수녀원, 성당에서 김밥과 주먹밥 등의 물품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 의미를 담은 '독







재타도 민주헌법쟁취라 적힌 불끈 쥔 주먹 형상의 표석이 부산가톨릭센터 외부에 세워져 있습니다.

표석을 살펴본 후 보수동 책방골목과 양서협동조합 자리를 지나 또 다른 부산 민주화운동의 성지 중부교회로 이동했습니다. 교회 벽면에는 지나가는 시민들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6월항쟁 당시 사진 자료가 큼지막하게 붙어있었습니다.

“저렇게 높고 좁은 곳에 들어갔다고요?”

시위대가 숨어있었다는 교회 종탑 지붕을 바라보며 놀라는 신입회원님들의 모습이랍니다. 당시 민주화운동의 긴박하면서도 간절했던 상황이 생생히 느껴졌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작고 소박해 보이는 중부교회. 불과 40여 년 전 바로 이곳에서 저항의 불길이 치열하게 치솟았다니, 이 속에 담긴 역사적 순간의 의미는 참 거대하게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대각사와 남포동 거리의 부마 표지석을 둘러보았습니다. 거리의 혼한 조형물인 줄로만 알았던 형상물의 정체가 사실은 부마표지석이었네요. 이번에 처음으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부마민주항쟁 이곳에서 시민항쟁으로 발전하다”라 쓰여있는 표지석을 읽으며 오늘의 탐방을 마무리했습니다.



두 시간 남짓 함께 민주화 운동의 여정을 걸어 보았는데요. 도보로 걷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가벼운 코스여서 회원님들과 같이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다니기에 참 좋았습니다. 또한 세심한 해설을 들으며 바로 그 자리의 역사적 현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어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탐방이었습니다. 민주공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처음이라 낯선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마무리는 부산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민주공원에 대한 친근함으로 가득 채울 수 있었던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회원과 시민 모두 편하게 신청하여 체험하기 좋은 프로그램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산민주역사길 현장탐방 신청
(문의. 교육문화팀 051-790-7416)



해 설사님의 쉬운 설명과 함께 가볍게 걸으며 곳곳에 숨은 보물 같은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일상의 공간에서 고군분투했을 과거의 시민들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역사의 흔적들이 더욱 잘 관리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지만 '아, 이래서 기념사업회가 필요하고,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역사길 투어가 활성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부산의 민주화운동과 장소, 역사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고 싶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 신입회원 김**님

4 0년 부산을 살면서 원도심 투어를 처음 해보았습니다. 남포동을 수없이 다니면서 부마항쟁 기념비가 있는 걸 처음 알게 되었네요. 짧지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신입회원 오**님

“ 신입회원님들께서 민주역사길 현장탐방 소감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 늘 체험을 하면서 수없이 지나다녔던 곳에 대해 모르고 지나쳤던 건물이나 조형물 등을 보고 알고 보는 것은 금덩이지만 모르고 보는 것은 돌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새삼 많이 깨닫게 되었고, 혹시 지인들과 지나갈 때도, 먼저 나서서 설명을 꼭 하여서 이 뜻깊은 시간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신입회원 박**님

이 번 민주역사길 투어를 통해 일상에서 지나치기 쉬운 장소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걸어볼 수 있었다. 거기에 골목골목마다 잘 녹여낸 해설사님의 설명은 장소를 더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었다. 누구나 한 번쯤 꼭 걸어보기를 추천하고 싶다!

- 신입회원 김**님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에서 온 편지



시월의 함성을 오늘에 되살리며

새해를 시작한 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코끝에 봄꽃내음이 한 움큼 머무는 계절입니다. 올해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모두와 나누고픈 따뜻한 봄 햇살처럼, 흐드러지게 날리는 벚꽃만큼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만날 예정입니다.

우선 올해로 46주년을 맞이하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이 10월 16일, 경남 창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어느 때보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존재감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사건이 많았던 만큼 뜻깊고 울림이 있는 기념식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우리 재단이 기념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은 철옹성과 같았던 유신정권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시민항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피, 땀, 눈물이 모여 오늘날 우리 민주사에 큰 이정표를 세웠던 만큼 이를 널리 알리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참여형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 미래세대에게 지역 민주사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민주·인권·평화 퀴즈골든벨」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더 많은 시민과 함께 항쟁의 역사적인 현장을 거닐며 '부마민주항쟁'의 가치를 나눌 수 있는 「부마걷기대회(가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매년 시행하고 있는 「부마길 현장 탐방(부산·마산)」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재단은 '부마민주항쟁'이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가치가 현재 우리 사회 전반에서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에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부마민주항쟁의 사료·작품을 전시하며 호평을 얻었던 '아카이브 순회 전시'가 올해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부마의 정신과 가치를 소재로 문화공연 콘텐츠를 만들어 관객과 소통하는 '부마문화제'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 민주·인권·평화라는 가치를 담고 있는 문학 작품을 발굴하고 시상하는 제6회 부마항쟁문학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4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진상규명과 역사적 정립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연구 저변의 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년 개최는 학술대회는 물론 학술논문 지원, 관련자 구술 채록 및 사료 수집을 통해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장학사업도 꾸준히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우리 재단은 기념식을 비롯해 많은 분과 부마의 정신과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과 자리를 만들고자 소개해 드린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1979년 시월의 부마를 오늘에 되살리는 힘이 됩니다. 더 자세한 소식을 담은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

(사진: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제공)



2025년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시무식

1월 2일 (목)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수탁·부설기관 임직원은 2025년을 참배로 시작했습니다.

넋기림마당에서 애국영령과 민주열사를 기리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참배를 했습니다.

참배 후 이행봉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방명록에 "자주독립 영령이시여! 애국민주 영령이시여! 올해는 훼손된 이 땅의 민주주의가 온전히 복원이 되는 한 해가 되는데 힘을 보태 주시옵소서"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부산지역 민주열사 유족 설 인사

1월 22일 (수), 부산지역 민주열사 황보영국, 박종철, 이태춘 열사의 유족을 찾아 설 인사를 드렸습니다. 올 한 해도 무탈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왔습니다.

2025년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정기총회

2025년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정기총회가 2월 20일(목) 오후 7시 민주공원 작은방(소극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총회에 앞서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과 2024년 정기총회 이후 보선된 이사와 신입 직원 인사 시간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매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한 회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습니다.

총회에서는 2024년도 활동·사업평가, 감사보고서 보고와 2025년도 활동·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2025년도 민주공원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

2월 15일 (토) 민주공원 작은방(소극장)에서 2025 민주공원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함께할 자원활동가는 25명(청소년 18명, 대학생 7명)으로, 이들이 모여 단체 소개와 활동 내용을 듣고, 민주공원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민주공원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할 자원활동가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활동소식 구독

민주주의로 이어지는 우리의 시간

일정 미리보기

안내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민주공원 누리집을 통해 공지됩니다.
 상시 운영 프로그램은 운영 기간 중 민주공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월	5 월	6 월	7 월
제65주년 4·19혁명 희생자 추모위령제	4.18(금)			
<민중미술 2025> 섹션1. 민중미술가열전 ⑧ 송주웅	4. 8(화)~ 4.30(수)			
어린이날 행사(민주공원 놀이터)		5. 5(월)		
국가 폭력에 맞선 시민의 힘 - 5.18민주화운동과 대만2.28사건		5.13(화) ~ 6. 1(일)		
제45주년 5·18민중항쟁 부산기념식		5.18(일)		
제38주년 6월 민주항쟁 부산기념식			6. 7(토)	
<민중미술 2025> 섹션2. 광복80년 기념전시			6.10(화) ~ 7.27(일)	
민주공원 예술놀이터(샌드아트공연·체험)			6.21(토)	
민주공원 부속 민주주의기록관 개관			6.26(목)	
민주공원 기획공연				7. 5(토)
부산 민주 역사길 현장 탐방(상시 운영)				
반나절 풍류(상시 운영, 피크닉 세트 대여)				
민주공원 '봄' 숲체험(상시 운영)				
민주공원 숲 스토리투어(상시 운영)				
민주항쟁기념관 상설 전시해설(상시 운영)				
민주공원 스토리투어(상시 운영)				



민주공원 누리집



프로그램 신청

당신이 민주주의입니다.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 함께 걸어주세요.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민주화운동을 기념·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기념사업, 민주시민교육, 대중문화예술, 기획전시, 체험활동 사업에 쓰입니다. 후원회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후원 회원	가입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후원 : 월 10,000원 이상 정액 납부 · 일시 후원 : 기본 회원 추가 납부 및 단체, 기관, 법인, 기업 일시불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홈페이지 (www.ohminju.or.kr) · 전화 가입 (051-790-7482) · 큐알 코드 간편 가입 → 

회원 혜택



행사, 교육활동
우선 알림과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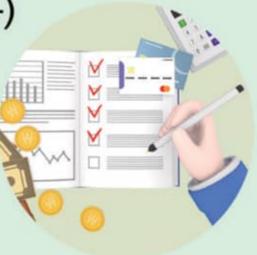
회원 참여 활동
(체험프로그램 등)



소식지 무료 발송
(연 4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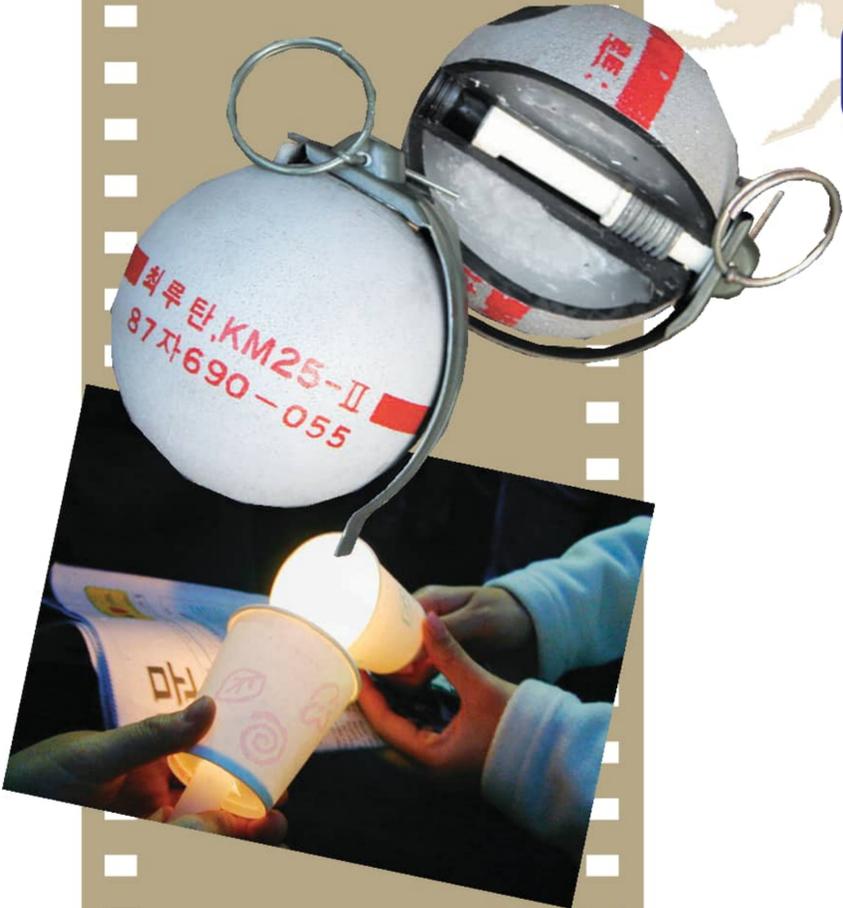
공연, 전시 관람
무료 초대 및 특별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홈페이지 www.ohminju.or.kr | 전화 051-790-7482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 기록을 모읍니다!

2025년 6월 민주공원 부속건물 민주주의기록관을 개관합니다. 부산지역의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역사 관련 기록물을 수집·보존·관리·활용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민주주의 거점 기록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 바랍니다.

민주공원에서는 민주화 관련 문서, 사진, 민중미술작품 등 5만 6천여 점의 사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기록관에는 기존 사료와 함께 시민의 다양한 민주주의 기록을 기증받아 보존·관리·활용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기록을 기다리겠습니다.

사료 기증 절차 안내

1. 기증 신청

- 전화 : 051-750-3803
- 전자우편 : lisophy@demopark.or.kr

2. 기증 희망 사료 조사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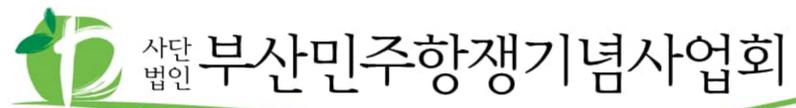
-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사료 확인(사료 수량·내용·상태)
- 사료의 가치에 대한 평가, 수집 범위 설정

3. 사료 수집 일정 및 활용 협의

- 기증 사료 수집 일정 협의
- 기증 후 사료의 공개 범위와 전시·연구 등의 활용 방안 협의

4. 사료의 수집

- 담당자의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사료 수집
- 기증확인서 발급 및 기증자 혜택 제공



민주항쟁기념관 48901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 T. 051-790-7400
민주주의기록관 49214 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 193번길 161 T. 051-750-3800